

2세 급제공(휘 의)의 생애

2세 급제공은 시조 호장공의 아드님입니다. 이 분에 대한 공식 기록 역시 4세 밑직공의 계축 호적에 ‘祖及第宜’로 기재된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기록 때문에 이 분의 삶에 대한 고찰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이번 작업에서 위에 언급한 지극히 짧은 정보와 급제공께서 사셨던 시대 상황들을 두루 종합하여 급제공의 삶을 풀어나가하고자 한다.

호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시다.

급제공께서는 반남 호장으로 계신 호장공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당시 관행으로 보았을 때 이웃 마을 호장 집안 출신이었을 것이다.

출생 시기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다. 다만, 손자인 4세 밑직공의 출생년도가 1296년임을 참작해서 한 세대를 평균 30년으로 보았을 때, 대략 1240년 전후에 출생하셨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장의 자제로서 누린 혜택

급제공께서 태어나신 고려 시대는 신분 사회였다. 고려 시대의 상층 계급은 양반과 귀족이고, 다음이 중류 계층으로 서리, 향리, 하급 장교 등이 속한 집단이었으며, 그 밑에 양민 계층으로 농민과 상인 등이 속했다. 그리고 노비는 최하층 계급인 천민으로 분류되었다.

신분 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개인이 속한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임을 의미한다. 호장은 향리로 중류층에 속해서 양반/귀족에 비해서는 낮은 신분이었지만 일반 양민보다는 높은 신분이었고, 지역사회 내에서는 가장 대우받는 신분이자 지배 계급이었다.

이런 신분 사회에서도 신분 상승을 위한 길은 열려 있었다. 문종 2년(1048

년) 내린 교서에 의하면, 각 지방의 부호장 이상의 자제들 중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재관의 시험을 거쳐 도성(송도)에 올라와 과거를 보도록 하는 지침을 담고 있다.

훗날 급제공께서 급제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호장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을까?

고려의 향교는 지방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이다. 고려 인종 5년(1127)에 내린 교서에 의하면, “ 모든 주현에 학교를 건립하여 교육에 힘써라.” 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무렵 반남현에도 향교가 생겼을 것이고, 급제공께서는 어린 시절에는 집에서 가까운 반남 향교를 다니셨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해서는 나주 목사가 직접 관장하는 나주 향교로 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셨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 향교는 반남 향교에 비해 규모도 크거니와 교수와 학생의 수준이 높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과거 시험 준비와 관련하여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쯤 반남을 떠나셨을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손자인 밀직공께서 태어나신 해가 1296년임을 참작하면 밀직공의 할아버지이신 급제공께서 태어나신 시기는 대략 1240년을 전후한 시기였을 것이고, 그분이 커서 가정을 이룬 시기는 대략 1260년 전후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시기는 1231년부터 시작된 몽골과의 40여 년에 걸친 전란의 시기였다. 특히 일본을 정벌하고자 하는 몽골에 있어 서남해안 지역은 전략 거점으로서 중요했다. 여몽 연합군이 일본 정벌에 나서기 위해서는 막대한 군량미의 조달이 필요했고, 대규모 선단을 운용할 인력 차출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곡창지대를 끼고 있어 천혜의 땅으로 불리던 나주 일대는 전란의 피해를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대대로 뿌리내려 온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데에는 전란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한몫했을 가능성도 있다.

반남을 떠난 이유가 어떻든 당시의 이주 결행은 훗날 우리 반남박씨 가문이 명문가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큰 도약이 된 사건이었다.

반남에서 강화 도성으로 가는 길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반남에서 강화 도성까지의 여정은 아마도 영산강 포구에서 배를 타시고 서해를 거슬러 올라 한강 하구에 있는 강화 도성으로 가는 뱃길을 이용하셨을 것이다. 당시 배는 오롯이 바람과 사람의 힘으로만 나아가는 것이었기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풍랑으로 배가 전복되거나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도 자주 일어났다. 운이 좋아 사고를 피하더라도 나주에서 강화 도성까지 가려면 한 달은 잡아야 했다. 배편도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태풍이 자주 오는 7월에서 9월까지의 아예 없었고, 주로 남서풍이 부는 3월에서 5월 사이가 적기였을 것이다.



800년 전 고려 시대 운항했던 조운선을 복원한 모습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번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기약을 할 수 없는 길이었을 것이다. 고향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빠르게 연락 할 방법도 여의치 않았을 것이고, 세월이 한참 흘러 인편을 통해 설사 연락이 닿는다 해도 그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이후일 것이다.

한편, 반남박씨 시조이자 급제공의 부친이신 호장공께서 돌아가신 후 급제공께서 지관을 찾아 별명당에 모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급제공께서 반남을 떠난 시기는 이미 부친이신 호장공께서 돌아가신 후일 것이다. 만일 급제공께서 반남을 떠난 후에 호장공께서 돌아가셨다면, 부음을 바로 전해 받지도 못했으려니와 빨리 달려갈 교통편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주를 떠나신 후 처음 정착하신 곳은 어디일까?

이에 대해서도 기록상으로 전해지는 것이 전혀 없다. 당시 토지는 나라 소유였기 때문에 돈으로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던 시절이었음을 고려하면 집과 전답을 사서 이주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급제공께서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본관 반남을 떠나셔서 처음 정착하신 곳은 고려 도성이 있던 송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4세 밀직공께서 태어나신 해가 1296년임을 참작하여 역추산하면, 2세 급제공께서 반남을 떠나신 시기는 1260년대 경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는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아 도성을 강화로 옮긴 시기(1232년~1270년)이고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극자감도 강화로 옮긴 상태였다. 또한, 어느 시대나 도성에 들어가려면 평시에도 특별한 허가가 필요했다. 하물며 몽골군의 공격을 피해 사방이 바다로 차단된 강화 도성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더욱 통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사정으로 급제공께서는 나주에서 뱃길로 올라와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강화에서 가까운 지역 어딘가에 자리를 잡으셨을 것이다. 이때 도성과의 접근성이 주요 고려사항이었을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통진-김포-양천(공암진)으로 이어지는 한강 하류

지역은 배를 타면 강화 도성이든 송도의 관문인 벽란도이든 당일로 당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었을 것이다.



대동여지도 상의 한강 하류 지역
지도(1861년)

과거에 급제하셨지만 관직에 등용되지는 못하셨다.

2세 급제공의 호칭에 내재된 급제(及第)란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의미이다. 중앙의 귀족이 아닌 지방 향리의 자제로서 문과에 급제했다는 사실에 미루어 볼 때 급제공의 학문 수준이 상당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관직을 역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합격하시고도 돌아가실 때까지 관직에 등용되지는 못하신 것으로 보인다.

사료에 의하면, 고려 시대 후기에는 과거급제를 해도 관직에 자리가 나지 않아 오랜 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관직에 등용되지 못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중앙 권문세족의 자제가 아닌 경우 대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 점에 비춰볼 때, 지방 출신인 급제공께서도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것으로 보인다.

급제자에 대한 처우

한편, 관직에 등용되지 못한 급제자에게는 녹읍은 지급하지 않지만 대신 등과전(17~20결)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조선 시대 도량형 기준으로는 1결=3,270평이며, 17 결은 약 55,600평에 해당하는 토지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선 시대 기준이며, 고려 시대의 1 결은 일률적이지 않아 어느 정도의 면적인지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 점을 고려해도 등과전 토지 17결이면, 한 가족이 먹고 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논밭과 땀감을 조달할 수 있는 임야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서 판단컨대, 급제공께서 급제를 하신 이후 나라에서 받은 등과전을 생계 기반으로 삼아 급제공 일가가 삶을 꾸려나가셨을 것이다.

고려문과 방목은 전란으로 거의 소실되었다.

급제공께서 언제 몇 등으로 급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고려 시대 급제자 명부를 고려문과 방목이라고 하는데, 고려 시대 방목으로 온전하게 합격자 명단이 남아있는 것은 16개 방목으로, 경인방(충렬왕 16년, 1290), 경자방(공민왕 9년, 1360), 임인방(공민왕 11년, 1362), 무신방(공민왕 17년, 1368), 기유방(공민왕 18년, 1369), 신해방(공민왕 20년, 1371), 갑인방(공민왕 23년, 1374), 병진방(우왕 2년, 1376), 정사방(우왕 3년, 1377), 경신방(우왕 6년, 1380), 임술방(우왕 8년, 1382), 계해방(우왕 9년, 1383), 을축방(우왕 11년, 1385), 무진방(우왕 14년, 1388), 기사방(공양왕 원년, 1389), 경오방(공양왕 2년, 1390) 뿐이다.

1290년 이전에 치러진 과거 시험의 급제자 명부는 다른 사료들과 함께 몽골 침략 당시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전해진다. 급제공의 증손자인 문정공의 급제 연도가 1353년임을 고려하고 한 세대를 평균 30년으로 볼 때 급제공의 급제 시기는 대략 1260년~1270년 정도로 추정된다. 급제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이다.

급제 기록이 없다고 해서 급제 사실이 과장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술한 계축 호적에 ‘及第’ 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대 공문서인 호적에 급제하지 않은 사람을 ‘급제’ 라고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급제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가문의 격을 바꾸는 사건이다. 지방 향리에서 중앙 관리가 되어 나라에서 지급하는 녹읍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이다.

급제공께서 급제를 하신 후 관리로 임용되지 못하셔서 녹읍을 받지 못하신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후손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 속에서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비록 고위직은 아니더라도 아드님인 참의공께서 승유진사로서 양온령 동정을 역임하시게 되었고, 손자인 밀직공에 이르러서는 봉익대부 밀직부사 상호군에 오르며, 집안의 기반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 올리시게 되었으며, 이 분의 두 아드님과 두 분의 사위가 과거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함으로써 명문가의 기틀을 확실히 잡게 되었다.

급제공의 증손이신 문정공께서 과거에 합격하신 것이 1353년이니까 급제공께서 반남을 떠나신 지 거의 100년의 세월이 흘러 중앙 무대의 유력 집안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급제가 종사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급제공께서 급제를 하셨다는 내용이 갖는 의미는 크다.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대 상황을 가정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급제공께서 과거에 도전하지 않고 고향인 반남을 벗어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부친의 뒤를 이어 반남호장을 지내며 그런대로 편안한 삶을 누리셨을 것이다. 당시 호장직은 세습직이었기 때문이다. 호장 집안이라면 그 지역에서 사는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물안 개구리식 삶일 뿐이었다.

급제공께서 사셨던 고려 중후기에는 많은 지방 호족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

으로 진출하던 시기였다. 광산김씨 족보를 살펴보면, 그 시기에 많은 인물들을 증앙으로 진출시켰다. 광산김씨의 본관인 광산(광주)은 반남현이 속했던 나주의 이웃 마을이었다.

이웃 마을 김씨 가문의 자손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동네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호장공께서도 집안의 미래를 생각하며 고민의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나주 향교에 다니며 공부를 하던 급제공께서도 보다 높은 곳에 뜻을 품게 되셨을 것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마냥 반남 호장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급제공께서는 과거에 도전하여 급제하게 되셨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방 향리층 자제들이 증앙으로 진출하여 증앙 관직에 등용됨으로써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을 신흥사대부층이라 한다. 이들은 대체로 개혁 성향이 있는 지식 집단이었기 때문에 훗날 조선이 개국되면서 이들을 증용하게 되고 그 가문들이 소위 양반계급을 형성하여 조선 왕조의 관리들을 배출하여 가문을 융성시키게 된 것이다.

만일 급제공께서 고향에서의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고 과거에 도전하기를 포기했다면 우리 반남박씨 가문은 양반층에 속하지 못하고 평민 틈에 끼어 지리멸렬해서 역사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사라진 가문도 많다. 가까운 예로, 급제공께서는 큰며느리를 화순오씨 집안에서 데려왔는데, 당시 혼인 관례로 보았을 때 화순오씨 집안도 이웃 호장 집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화순오씨는 3,032명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가문으로 쇠락했다.

결과적으로 급제공께서 증앙 무대로 진출하는 용단을 내리시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우물 안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거기에 급제까지 하셔서 등과전을 받아 생계 기반을 구축하심으로써 후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지속해서 증앙 진출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증손대에 이르러 증손자 두 명(상충-상진)이 문과에 급제하는 성과를 보게 되었고, 증손녀 두 명도 모두 문과 급제를 한 당대 큰 인물(광주 안길상-서산 유백유)들에게 시집을 보냄으로써 명실공히 명문가의 초석을 다지게 된 것이다.

족보에는, 급제공의 묘소를 ‘봉현에서 10리 떨어진 공암현 마산리’에 모셨다는 설이 있어서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셨다는 내용이 실려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기록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봉현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마산’이라는 지명이 실재한 것은 맞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군사지도인 『지승』의 나주목 지도에 의하면, ‘공암현 마산리’가 아닌 ‘나주목 마산면’으로 존재할 뿐, ‘공암현 마산리’는 실존 지명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오류는 급제공의 묘소를 공암현 마산리에 모셨다는 이야기가 후대로 구전되는 과정에서 ‘부친이신 시조 호장공의 묘소 주변 지역의 ‘마산’을 연계시키다 보니 ‘봉현에서 10리 되는 공암현 마산리’라는 내용으로 왜곡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암현 마산리’라는 지명은 4세 밀직공의 둘째 사위인 유백유 공께서 큰 처남인 5세 문정공(휘 상충)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작성한 『반남 선생 행장』에도 등장한다. 바로 문정공께서 1332년 ‘공암현 마산리’에서 출생하셨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동시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기록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급제공의 묘를 모신 곳과 급제공의 증손자인 문정공의 출생지로 언급된 지명이 같다는 것은 급제공의 급제로부터 문정공 출생에 이르는 시기 (대략 1260년 ~ 1332년)에 ‘공암현 마산리’는 우리 집안의 삶터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공암현 마산리는 어디?

그렇다면 ‘공암현 마산리’는 어디일까? 이에 대해 선대 조상님들도 궁금증을 갖고 위에 언급한 봉현 부근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찾아다니셨으나 끝내 단서를 찾지 못하셨다.

참고로 급제공의 묘소를 찾기 위한 선조님들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봉현(峰峴)에서 10리 되는 공암현(孔岩縣) 마산리(馬山里)에 한 고총(古塚)

이 있는데 박 씨 산(朴氏山)이란 전설(傳說)이 있으나 그곳에 사는 서가(徐哥)가 그 곁에 여러 번 장사(葬事)하였고 또 반남리(潘南里)에는 정가(鄭家)의 죽림(竹林) 속에 고총(古塚)이 있는데 또한 박 씨 묘(朴氏墓)라는 말이 있어 영조(英祖) 경진(庚辰 1760)년에 18세손인 도원(道源)이 두 곳을 찾아 보았으나 모두 증거(證據)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문중에서 조선 시대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증 작업을 진행한 결과, 고려 시대의 ‘공암현 마산리’는 현재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에 있었던 지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고증 내용은 5세 문정공 편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과연 공암현 마산리에 묘를 쓰셨을까?

그러면 왜 선조님들께서는 급제공 묘소의 소재지로 ‘공암현 마산리’를 지목해서 족보에 기록해 놓고 찾아다니셨을까? 추정컨대 ‘공암현 마산리’는 선대로부터 구전되었거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사적 기록 속의 내용을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선조님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쑥 ‘공암현 마산리’를 기재해 놓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공암현 마산리’에 모셨다는 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곳에 모시게 된 과정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급제공께서 급제를 하심에 따라 나라에서 등과전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 등과전을 기반으로 도성 근교 생활을 하시면서 관직이 제수되기까지 기다리셨을 것이다. 당시 등과전은 도성 주변인 경기도 지역의 토지와 임야로 충당하였는데, ‘공암현 마산리(지금의 금천구 독산1동)’는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등과전으로 주기에 적합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급제공께서 끝내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신 채 생을 마감하시게 되면서 아드님이신 3세 참의공(휘 윤무)께서 부친의 묘를 등과전으로 받으신 공암현 마산리에 모셨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통사회에서 묘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서, 어떤 이가 등과전을 받으면 그 땅에 자신의 묘를 쓰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전통은 조선 시대 후기까지 이어졌다.

급제공 묘소는 왜 실전되었을까?

한편, 고려 시대 토지 제도에 의하면, 토지는 사유 개념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에서는 급제자에게 등과전을 주는데, 이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권리(수조권)를 주는 것이었다. 고려 중기까지 수조권의 상속이 허용되어 급제자가 사망하면 자손들이 물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가면서 권리자가 사망하면 수조권을 나라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공암현 마산리’ 지역에는 급제공께서 받으신 등과전이 있었고, 거기서 급제공-참의공-밀직공-문정공 시기까지 세거하시다가 문정공께서 1352년 과거에 급제하시면서 송도 인근인 송도 외곽인 북부 상오관산리에 등과전을 받으시면서 송도로 이주하셨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공암현 마산리’ 지역에서 행사한 수조권은 나라에 반납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공암현 마산리’ 는 우리 삶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곳에 따로 모셔져 있던 급제공 묘소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수 대를 내려오면서 실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급제공의 제단

실전된 묘소를 대신하기 위해, 대종중에서는 시조이신 호장공 묘소의 재실로 지어진 상로재 옆에 단소를 조성하고 2011년 9월 30일 단을 세워 그분의 삶을 기리는 제단으로 삼게 되었다.



급제공(휘 의) 제단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16-3 소재

금제공께서 후손들에게 주신 교훈

만일 금제공께서 부친이신 호장공의 반남 호장직을 물려받아 반남에 안주하며 반남을 떠나는 결단에 주저했다면 우리 가문은 아마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여타 많은 성씨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전술했듯이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가족 전체의 생사를 걸어야 하는 큰 모험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안위를 넘어 앞으로 태어날 후대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신 도전 정신에 대해 우리 후손 모두는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후손들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편안함보다는 집안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도전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